

“세계조개가 다모였다”

신안군, ‘세계조개박물관’ 오픈

975㎡ 백합조개 닳은 건물 1만1천여점 표본
신비한 해양생태계·환경 보호 중요성 홍보

1004점 신안군은 지난 7일 국내 최대 조개·고동 전문박물관을 자은도 1004뮤지엄파크에 개관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기증자에 대한 감사와 명예관장 위촉,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간소하게 진행되었지만 참석자들의 진심어린 축하로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세계조개박물관’은 건축면적 975㎡(135평)의 백합조개를 닳은 건물 안에 바다 생명체를 탐험하는 듯한 흥미로운 연출로 전 세계 1만 1천여점의 신비한 조개고동 표본과 조개 공예작품이 전시되어 교육과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꾸며졌다.

전시관은 2개의 주제관으로 구성되었는데 1관은 멸종위기종인

나팔고동, 세계에서 제일 큰 오스트리아트럼펫고동, 기원전부터 화페로 쓰였던 개오지고동 등 신비하고 화려한 조개와 고동의 세계를 직접 볼 수 있다.

2관은 ‘인류와 조개고동’이라는 주제로 선사시대 패총에서부터 현대의 조개공예까지 인류와의 인연을 흥미롭게 연출하였고, 곳곳에 숨어있는 포토존은 방문객들에게 추억을 선사해준다.

박물관의 개관에는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임양수관장의 기증(조개고동 표본 7,735점)과 전시연출 자문이 큰 도움이 되었으며, 개관식에서 감사패와 명예관장 위촉장이 수여되었다.

임양수 관장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신안군의 갯벌생태계 보호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 감



명받아 자신이 소유한 전시물 중 조개·고동 표본 대다수를 신안군에 기증하였고, 신안군은 청정바다를 품은 1004 뮤지엄파크에 세계조개박물관을 개관하여 신비한 해양생태계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한편 개관식에 참석한 한국박물관협회 운영수회장은 “신안군의 1도 1뮤지엄 정책을 알고 있어 행사에 꼭 참석하고 싶었고, 문화와 예술에 대한 신안군의 노력에 감동하고 아름다운 세계조개박물관의

탄생에 감격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번 세계조개박물관의 개관으로 ‘1004 뮤지엄파크’에는 바다휴양숲공원, 1004점 수석미술관, 수석정원, 신안새우관전시관이 운영되어 관광객에게 더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1004뮤지엄파크는 8월 11일부터 성인기준 1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특별 홍보기간에는 입장료의 일부를 신안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동취재본부

함평군, ‘수도권 귀농귀촌 유치 총력’

함평군이 수도권 예비 귀농귀촌인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10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9회 귀농귀촌 체험학습 박람회에 참가했다.

‘내추릴 워크’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친환경 유기농 무역박람회, 할랄 엑스포코리아, 대한민국 발효식초대전 등과 동시에 개최됐다.

군은 이번 박람회에서 수도권 내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임포 빈집재생사업’, ‘귀농인의 집’ 등 지역에서 직접 살아보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1:1 맞춤 상담을 진행했다. 또 올해 말 준공 예정인 귀농



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를 통해 일정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적응, 농업 창업과정 실습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적극 홍보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함평이 보유한 뛰어난 지리적 이점(KTX, 무안국제공항 등 인접)과 천혜의 자연환경 등이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잘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목포시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목포시가 2020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0만2,703건 17억2천7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균등분)는 2020년 7월 1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 본인의 주민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목포=박정수 기자

영암서울농장, 농업일자리 탐색교육 진행

참석 교육생 전원 코로나19 검사·창업·취업 기회 제공



영암군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와 서울특별시의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 거주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일자리 탐색교육’을 영암서울농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업일자리 탐색교육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도농교류사업의 일환으로, 9월까지 4회에 걸쳐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기간은 3박4일 단기로 정으로 이루어지고 교육대상은

농업분야 취·창업 전직희망자 및 영농관련 체험희망자로,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농촌 취·창업 정보를 얻기 위한 농촌과 농촌일지리의 이해와 체계적인 귀농귀촌의 준비, 선배 귀농인들과의 대화, 특히, 영암군으로의 귀농을 유도하기 위해 영암군 주요정책의 설명 및 영암군의 대표적인 특화작물인 무화과와

대봉감의 현장실습교육 등을 개설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의 교육으로 참가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용자사업(최대 3억 7500만원) 신청을 위한 필수 이수 교육시간(총 100시간)으로도 인정된다.

특히, 영암군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참가자 전원에게 군비를 투입하여 코로나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발열체크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영암서울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영농경험이 부족한 도시민들을 위해 농작업을 경험하고, 농업분야 일자리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농촌에는 일손 확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민에게는 새로운 창업 및 취업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영광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영광군은 행정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행정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확산시켜 나가고자 오는 11월 ‘2020년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으로, 군민추천과 부서장 추천을 받아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명 이내로 선발한다.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적극행정의 성과, 공무원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휴가, 희망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선발, 인사평점 가점,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총무과(☎061-350-5234)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무안생태갯벌과학관, 각종 체험 ‘호응’

5월 8일 재개관 관광명소

무안군 해제면에 위치한 무안항 토갯벌랜드가 생태갯벌과학관 리모델링, 토피어리 포토존과 탐방로 해당화길 조성 후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8일 재개관한 생태갯벌과학관은 500여점의 생물표본, 디지털수족관, 갯벌미래관 등 상설전시와 어린이 전용 키즈놀이터, 힐링카페 정비를 통해 체류형 가족단위 여행객이 찾는 관광 명소가 거듭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27일부터 선보이고 있는 무안갯벌 지식 돌김과 천일염을 이용한 가족단위 감귤기 프로그램인 ‘만남(맛난)김에 김 구



위요’는 참가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접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모든 참가자는 사전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참가기간 좌석거리 확보 등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수많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수많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